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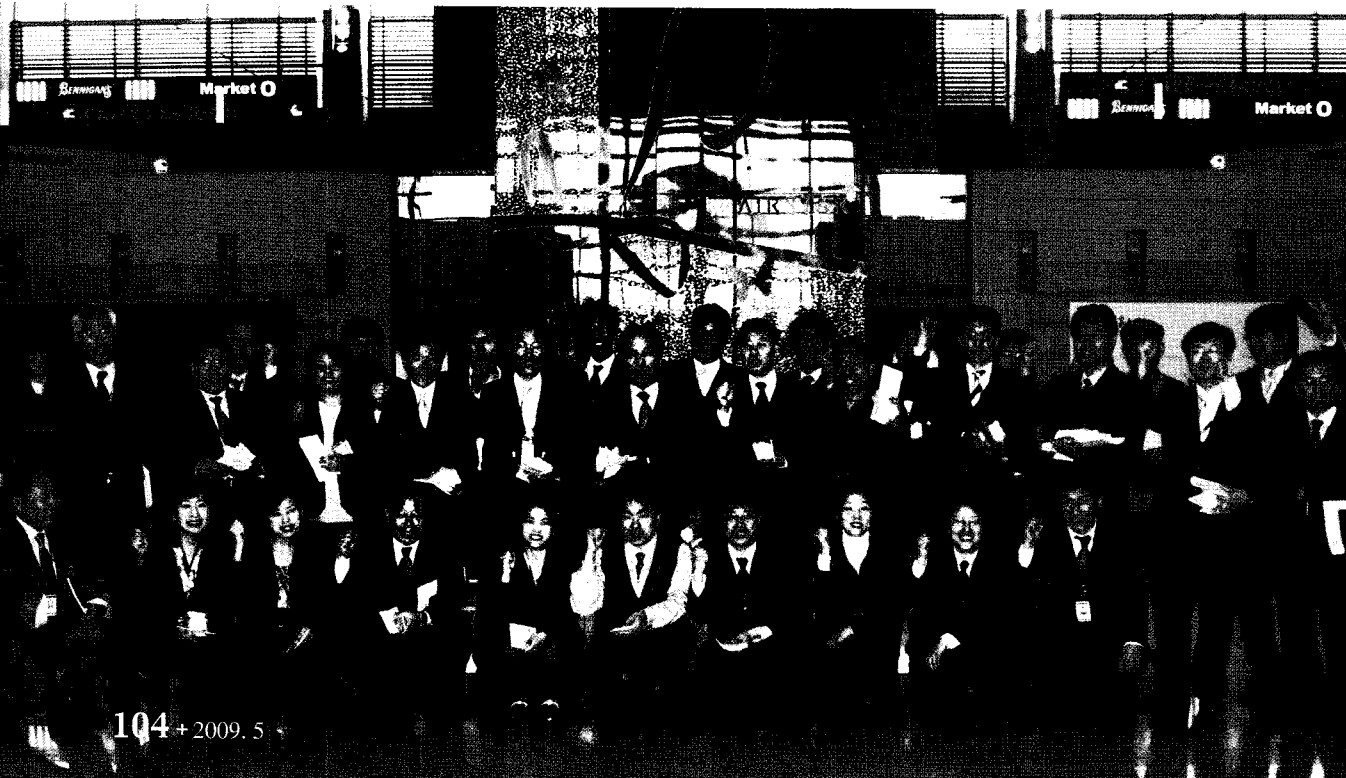
생산자단체 국경검역 현장방문(Q-tour) 제2의 국방, 국경검역 현장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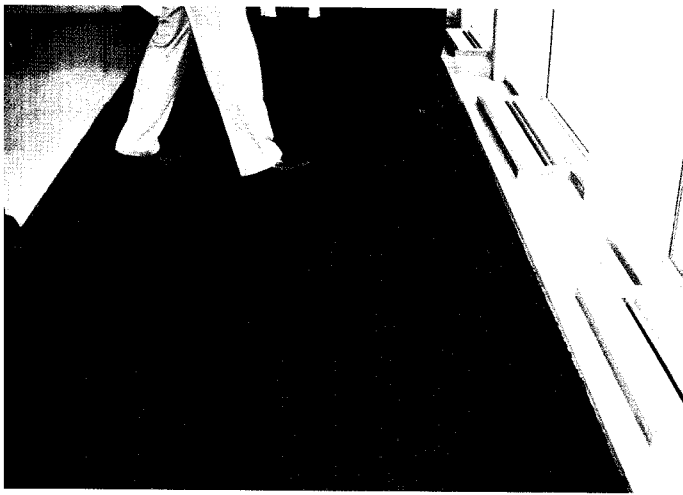
글 | 정승일 기자(jsiid@naver.com)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검역물량의 증가와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여행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한반도 인접국가에서 구제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한층 고조되고 있어 수입 축산물과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가축전염병(Exotic Animal Diseases)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에서는 국내 유입 시 축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을 해외악성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이들 질병의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해 감수성 있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은 물론 엄중하고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게이트의 발판 소독조



검사대에서 검사과정

국경검역업무는 제2의 국방

해외여행객의 급증과 축산물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전국의 공·항만에서 주요 전염병 매개의 위험요인인 여행객 휴대검역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해오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난 4월 15일 축산분야 생산자단체와의 협조체계를 위해 '생산자단체 국경검역 현장방문(Q-tour)'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되고, 이들 질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검역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계육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11개 축산단체관계자들을 초청했다.

국경검역 현장투어에서는 올해 국경검역 추진대책 전반에 대한 설명, 입국장 Gate 신발소독조 운영, 축산물 검색 및 검역탐지견 탐지시연 등을 참관하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검역탐지견센터를 견학했다.

먼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에서 가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업무설명회에서 이주호 원장은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되고, 이들 질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가축질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경검역 업무는 제2의 국방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올해 검역관을 집중 투입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객 대상 휴대 축산물 집중검색, 공항만 입국장 38개소 226 게이트에 발판소독조 423개 운영, 세관해경 등과 협조, 항공우편 검역강화, 검역탐지견 집중투입, 검역 홍보강화 등을 통해 병원체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나라를 지키는 국경수비대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국립수의과학



검역탐지견 시연



출국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검역원 인천지원으로 이동해 공항에서의 국경검역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인천지원에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업무, 검역탐지견 운영, 불법 동·축산물 밀반입자에 대한 수사, 발판소독조 운영 및 국경검역 홍보, 화물터미널을 통한 동·축산물 검역검사, 국제우편물센터를 통한 국제우편물 검사검역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은 하루에 280편의 항공기가 운행되며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인천지원에서는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사무실 4개소와 합동검사대 6개소, 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의 휴대축산물 검역방법은 세관의 X-ray 검색 → 검역탐지견검색 → 여행객 세관벨트라인 통과 → 무작위 세관 개장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며 1일 검역건수는

약 80건이다.

각 게이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발판소독조는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역탐지견 검색은 2001년 11월 2두가 투입되어 현재는 총 10두가 여객터미널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하물 수취대에서 위험노선(16개국 34개 노선)에 집중 투입해 탐지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전자 Teg을 부착해 합동검사대에서 검역관이 수하물을 개장해 검사를 하고 있다.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은 우사, 돈사, 마사, 축산물검역창고 등 4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동·축산물의 계류·보관·검역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기내 홍보 영상물 방영, 입국 동선에 따른

홍보 게시판 설치 및 홍보물 비치, 입국심사 대기 중 동물검역 홍보영상물 상영, CIQ내 동물검역 안내방송과 월 2회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고의 검색요원을 배출하는 검역탐지견센터

해외여행객은 2003년 대비 2008년 60.3% 증가한 반면 탐지견 투입으로 불법휴대축산물 적발 실적은 2002년 8,262건에서 2008년 36,066건으로 436% 급증했다. 이러한 성과로 일본에서는 2005년 일본 관계관이 검역탐지견센터에 방문해 시스템 전반에 관해 벤치마킹하고 현재 나리타공항에 탐지견 2두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시현에서 탐지견은 여행 가방에 들어 있는 진공 포장된 햄을 검색해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탐지견의 후각은 인간에 비해 최소 1만 배에서 최대 10만 배까지 뛰어난데 이는 개의 후각세포가 2~3억개로 인간의 5백만개에 비해 월등히 많고, 코 안은 냄새를 맡기에 적당한 온도와 습기가 항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항에서의 검역활동을 살펴본 후 3층 출



검역탐지견센터 우편수하물 탐색 시연

국장으로 이동해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전단지과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청정대한민국을 위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길에는 해당 국가의 축산물 등을 반입하지 말아줄 것을 홍보했다.

마지막으로 영종도에 위치한 검역탐지견센터로 이동해 공항 입국장 컨베이어 벨트 등을 모형으로 한 탐지 훈련시설에서 검역탐지견들의 실제 훈련 모습을 관람했다. 탐지견들은 비글과 라브라도 리트리버 두 품종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적고, 귀여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검역탐지견센터에서는 탐지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축산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먼저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공·항만 검역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수입 동·축산물, 해외여행객 관리 및 휴대육류·육제품, 기내식의 음식물 쓰레기 등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와 범국가적인 차원의 부단한 질병감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질병 발생국의 여행을 자제하고, '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생각으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